

그 사람 지금은

(38) 이호계 前 광주시장

■ 전라도 역사이야기

-전북 곰소만과 우반동

5·18 보상금 '1인 최소 800만→3,000만원' 관철

"1991년 5·18 광주보상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내부 조율을 진행하던 중 보상심의위가 잠정 결정된 보상액이 1인당 최저 800만원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낮은 액수였습니다. 그 보상액을 갖고는 5·18 피해자를 만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A4용지 10장의 직보 서신을 보냈습니다. '5·18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보상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3대 광주광역시장을 지낸 이호계(72) 송실대 총장의 기억이다. 서신은 곧장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이 총장은 하루 만에 총리실로부터 "이 시장의 제안대로 보상금액을 결정키로 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총장은 당시 직보 서신에서 5·18 부상자 보상금을 1인당 최저 3천만원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 이를 관철시켰다. 전체 보상금액은 1천400억원이었다.

"물론 유족 등 피해자들이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총장은 여수에서 출생해 여수초등학교, 광주서중, 광주고를 졸업했다.

이 총장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한 새벽기도는 지금까지 57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는 고3 때 '목회자의 길'을 다짐하고 아버지와 당시 다니던 광주 동명교회 임두섭 목사의 추천을 받아 송실대에 입학했다.

"송실대는 1897년 평양에서 배워랑(Baird) 선교사에 의

“목회자의 길 다짐 송실대 입학

아버지 권유 따라 고등고시 합격

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대학이며 민족대학입니다. 그러나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자 1938년 스스로 학교 문을 닫았다 광복 후 서울에서 1954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재건 1회로 입학했다. 이 총장은 신학에 앞서 법학을 먼저 공부하기로 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조화있게 실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가 가던 목회자의 길은 1958년 선천에 의해 중단됐다.

"1958년 당시 구례군수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께서 공직자가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고등고시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고시 출신의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상사가 되는 것을 보고 하신 생각 같았어요. 하지만 이에 반대, 6개월 동안 아버지와 소식을 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도 구례군수로 재직할 당시 극심한 가뭄으로 군민들이 아우성치자 하동지방을 바라보며 산꼭대기에서 기절까지 하면서 금식기도까지 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그분의 청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고시 합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



이호계(왼쪽) 당시 광주시장이 1990년 6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최인기 전남지사와 자리를 함께 하고 광주와 전남의 발전을 위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 사진)

결과 기타 사안 때문에 매일 시위가 벌어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광주시장으로 가는 것을 반대했는데 발령이 났습니다"

광주시장 재임 중인 1992년 2월엔 해양도시가스 공장 폭발 사고도 있었다. 30t짜리 LPG탱크가 폭발하면서 주위는 불바다가 되고 주변 반경 10km 이내가 정전됐다. 문제는 이 탱크에서 불과 6m쯤 떨어진 곳에 있던 3백t짜리 탱크, 이 탱크가 폭발하면 반경 5km 이내는 불바다가 되는 상황이었으나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면서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다.

그는 1992년 4월 전남지사로 자리를 옮겼다. 부임하던 그해 우투과이라وند의 태풍이 유난히 심했다. 당시 전남도 내 쌀 생산량은 6백8만9천 섬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사주는 추

“광주시장때 해양도시가스 사고

전남지사때 출향인에 쌀 판매 못잇어”

곡수매량은 겨우 1백78만6천 섬이었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 도민들이 소비하는 자가소비량은 2백50만 섬이다. 따라서 추곡수매량과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나머지 1백80만3천 섬이 남아돌았다.

농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운기에 벼를 싣고 각 군청 정문에 몰려와 '전향수매'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농민들은 광주시내 외곽지역에 벼를 싣은 경운기를 세워두고 도청 앞까지 진입했다. 그들은 벼에 휘발유 등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이 총장은 출향민을 떠올렸다. '가을 쌀 에메제'를 도입한 것, 전남 출신 한 기업인의 쌀에 약 전화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목표를 50만 섬으로 잡았는데 그해 11월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했을 때 목표보다 훨씬 많은 67만 섬이 계약됐습니다. 농민들로부터 감사가 답지했지요"

그는 1년여 만에 다시 서울로 갔다. 1993년 3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발령받은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약력
 ▲1935년 여수 출생
 ▲광주고 송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1961년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
 ▲전주시장, 광주시장, 전남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 토지공사사장, 농림부장관
 ▲송실대 총장

고시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4년간의 준비 끝에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에 합격했다. 송실대에서 최초의 고등고시 합격자가 된 것이다. 고건 전 총리와 박희태 의원이 고시 동기다.
 그는 이렇게 공직의 길에 들어섰다. 첫 발령지는 총리실이었다. 그리고 내무부 계장을 거쳐 청와대 행정관, 전주시장, 충북부지사, 부산 부시장 등을 거쳤다. 청와대에서는 당시 새마을운동의 기초를 다지기도 했다. 그는 또 서울시 행정을 총괄하는 총리실 제3조정관, 내무부 기획관리실장, 내무부 차관보 등을 역임하는 등 광역생활 내내 승승장구했다.
 "그러던 1990년 광주서중 후배인 당시 최인기 광주시장으로부터 내가 광주시장으로 발령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당시 광주시장 자리는 정말 힘든 자리였습니다. 5·18 문제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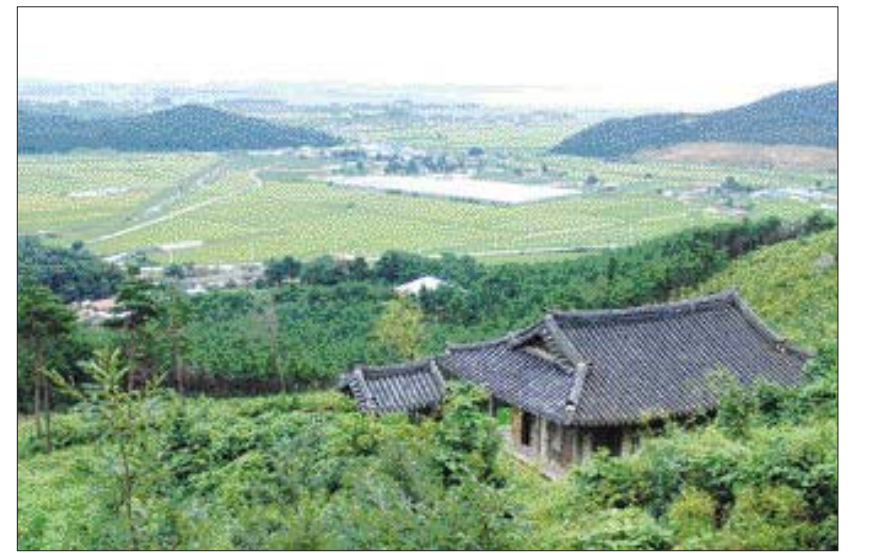
실학자 유형원 낙향해 서당 짓고 토지개혁 담은 '반계수록' 지은 곳

서해의 독산(獨山), 국립공원 변산(邊山)은 호남의 대봉산으로 관음봉(능가산·433m)이 지난달 국가대표급 자연전망대로 선정됐다. 변산에서는 원래 줄포(茁浦)·고부만(古阜灣)으로 칭했던 곰소만과 칠산바다가 압권이다.

곰소만은 부안군 공항(弓項) 건너 개섬(大島)에서 고창 해리 동호를 잇는 동편으로 좁아드는 삼각형 만입(灣入)이다. 어염상선(魚鹽商船)이 출몰하던 중심포구는 19세기 후반, 1920년대 줄포, 1960년대 곰소로 옮겨졌다. 현재 갯벌면적은 106km에서 84km로 줄고, 그 반은 모래간석지이며, 바지락과 가물막 양식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곰소항 북편 진서면 구진마을은 수군만호진인 검모포진(黔毛浦鎭)의 터다. 1274년 여몽연합군의 일본원정 때 조선소로 추정되고, 어살(漁箭)과 염장처(鹽場處)도 있었다. 19세기 지도에는 동헌, 내아, 군기고, 군관청, 사령청, 진부청이 보인다. 범섬(虎島·호도) 근처는 전·병·사후선과 함께 밀물 수심5척, 썰물 육지고, 홍(紅)·곰소섬(熊淵島·웅연도)도 표기돼 있다.

토사유입으로 줄포항 기능이 제한되자, 7km 서쪽 웅연도에는 1938년 신항이 건설된다. 구진(舊鎭)에서 곰소·범섬을 연결하는 독과 택지공사가 끝나고, 항만과 시장은 2차 대전 뒤에 공사가 이뤄졌다.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에 있는 반계서당의 전경.

줄포에서 북쪽으로 23번 길로 5리쯤 가면 보안면 소재지인 영전삼거리에 이른다. 좌회전해 30번 길을 따르면 바다 쪽은 고려자기 도요지(사적 69호)이고, 북쪽 산자락은 반계(礪溪)다.

실학의 비조, 반계 유형원(柳潁遠1622~673)은 한성에서 1653년 우반동(愚橋洞)으로 낙향했다. 9대조 관(寬)이 사패지(賜牌地)로 받았던 땅을 조부 성민(成民)이 1621년부터 개간, 경작했던 곳이다.

우반동은 지금 우동리(牛東里)로 북쪽 옥녀봉(433m)이 주산이다. 상서로 남는 바다재를 지나, 상여봉과 망월봉을 거쳐 남포로 내려선 좌정릉과 매봉에서 천마산으로 이어진 옛밭이 우백호와 안산이다. 수구(水口) 만화천(長川)은 남으로 흘러 곰소만에 이른다.

반계는 우신마을에 살면서 달기봉(217m) 기슭에 서당을 짓고, 19년에 걸쳐 명저 반계수록(礪溪隨錄) 26권을 집필했다. 1770년 간행된 이 책은 농민중심으로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내용을 포함, 참신한 개혁안이 담겨 있다.

우동마을에는 보물 제900호로 지정된 부안김씨 종중문서기 보존재 있다. 김홍원(金弘遠)이 유성민에게 산 땅에 김번(1639~1689)이 정착하면서, 분제기를 비롯하여 1천여 점의 문서를 남겼다. 김시습이 머문 굴바위와 선계(仙溪)폭포가 시원하다. /김경수(새향토문화진흥원장)

CBS

광주 CBS TV

영·혼을 사로잡는 힘

TV강단 08:00~09:00

TV강단 09:00~10:00

TV강단 09:00~10:00

TV강단 10:00~11:00